

욥기

세션 3: 권위와 영감이 있는 책으로서의 욥

존 월튼

이것은 Dr. John Walton과 욥기에 대한 그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3과, 권위와 영감이 있는 책으로서의 욥입니다.

도입 질문 [00:24-1:06]

자,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 욥의 친구들이 말하는 것 중 많은 부분이 틀렸다면, 그리고 욥 자신이 말한 것 중 일부라도 틀렸다면 어떻게 그 책이 사실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권위가 있다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권위 있는 책으로서의 욥, 즉 영감받은 책으로서의 욥에 대해 조금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봅시다.

영감: 그 근원이신 하나님 [1:06-1:58]

우선 우리는 용어를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영감에 대해 이야기할 때 의미하는 바는 그 책이 그 근원을 하나님께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감은 귀에 속삭이는 어떤 종류의 음성이나 마음에 심어진 생각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영감은 그 근원이 하나님임을 가리킨다. 그것은 물론 신약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호흡으로 말씀하셨다고 말할 때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근원은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의미하는 영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든 엘리바스나 소발이나 빌닷의 귀에 잘못된 생각을 속삭이고 있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영감—권위입니다.

권위와 우리의 순종적인 반응 [1:58-2:53]

권위는 책이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권위와 관련된 것입니다. 권위는 책이 말할 권리가 있음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물론 그것은 영감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감 덕분에 책은 말할 권리가 있으며 권위 있는 위치를 부여합니다. 그러나 말할 권리가 있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쁜 권위가 아니라 좋은 권위이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의지할 수 있고 복종해야 할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것이 당신이 권위로 응답하는 방법입니다.

계시와 지혜의 메시지 분별 [2:53-5:19]

우리는 또한 계시로서의 책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 자신의 계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다른 단어로 이야기한 것과 같은 종류의 사실과 신뢰할 수 있는 책을 발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책이 하는 일과 하지 않는 일도 알려줍니다. 책이 무엇을 하고 있지 않은지에 대한 우리의 토론을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라는 생각은 우리가 그 책이 우리에게 주는 계시에서 그 책의 권위를

발견하게 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담고 있는 지혜 문학을 통해
 확증되고 있는 그 메시지 안에 있는 계시입니다. 그래서 그 계시와 그 권위는
 연설의 내러티브 자체보다 지혜의 메시지와 더 많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책의
 대부분이 그릇된 생각이기 때문에 메시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잘못된 생각을
 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사고 방식을 보고 올바른 사고
 방식을 식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책이 참이라고 단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식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책 내용의 모든 것이 어떤 종류의 진실이나 진정한 메시지를
 확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주의 깊은 독자로서 그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 충실한 통역사가 항상 하는 일입니다. 텍스트의 확인이 무엇인지
 파악하십시오. 욥의 친구들은 때때로 진실을 말하지만 진실을 말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그들이 말하는 것의 거짓은 진실의
 그늘에 불과합니다. 그것들은 결국 가장 효과적인 거짓이며 진실처럼 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하늘의 대적이 진리를 말할 것이라고 믿을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때때로 그는 그렇게 합니다.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권위는 역사성에 있지 않다[5:19-6:37]

아마도 더 어려운 점은 여러분이 신중하게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점은 책의 권위가 실제 과거의 실제 사건에 대한 정확한 설명인지 여부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러티브를 통해 진실로 제시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혜를 통해 진리로 제시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야기가 거짓이라고 가정하거나 그런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권위는 그 역사성에 있지 않다. 왜냐하면 이 책은 그런 종류의 책이 아니기 때문이다. 진실은 사건이 실제로 일어났는지, 실제 과거의 사건인지 여부와 같은 역사성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진실은 그것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우리는 그것을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책의 권위다.

예수의 비유와 유사[6:37-7:41]

그리고 이 책은 서술적 사건을 긍정하는 것보다 더 많은 가르침을 주는 지혜를 긍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비유에서 일어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것들은 내러티브이지만 예수님은 그것들을 실제 과거의 실제 사건으로 제시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들에 대해 사실주의를 가지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비유를 작동시키는 비현실적인 요소, 현실적인 설정을 가지고 있지만 발생하는 비정상적이고 심지어 이상한 일도

있습니다. 그것이 비유를 실행 가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욱에게서도 같은 것을 발견합니다. 나는 그것이 비유라고 제안하는 것이
 아니지만 같은 방식으로 실제 사건에 의존하지 않는 비유와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매우 현실적이지만 다른 면에서는 매우 비현실적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 진행하면서 그것에 대해 더 이야기할 것입니다.

지혜 메시지의 권위 [7:41-10:03]

따라서 권위는 역사성에 있지 않고 진리는 역사성에 의존하지 않는다. 실제
 과거의 실제 사건의 정도에 관계없이 책의 지혜 메시지에 권위가 있습니다.
 지혜는 사건 자체보다 더 깊은 진실에 도달합니다. 지혜는 사건의 전개에서
 반드시 관찰할 수 없는 진실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볼 수 있으며, 그곳에서 사건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로 무엇을 할까요? 우리는 그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우리 삶의 사건에 현명하게 반응합니까?
 지혜는 사건의 전개와 함께 자동으로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아야 할
 진실을 이해하기 위해 사건을 지나 사건을 깊이 들여다보고 사건 너머를
 바라볼 때 지혜가 옵니다. 얻을 수 있는 지혜. 그런 의미 에서 지혜는 사건을
 초월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비유의 지혜가 그분이 자신의 이야기를 위해
 정리한 사건을 초월하는 것처럼 우리는 욱기에서 그것이 사실임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지혜는 더 깊은 진리에 도달합니다. 아이디어에는 진실이 있고,

책이 제시하는 아이디어에는 우리가 이해해야 할 진실이 있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과 연결되는 대신에 그것은 지혜가 우리의 즉각적인 시야 너머에 도달하는 일종의 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책이 제시하는 아이디어를 살펴봐야 합니다. 거기에 책의 권위가 부여된다.

하나님을 아는 것[10:03-12:03]

다른 생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자신의 계시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결국 이 책에서 우리가 받는 계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일하지 않으시는지에 대해 조금 더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제한된 정보만 제공합니다. 그게 문제야,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니?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싶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는 매일 만나고 상호 작용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같지 않기 때문에 그를 진정으로 알기 위해 침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는 몇 가지 장애물이 있다고 느낍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장애물은 그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우리에게 아주 깊이 알려질 수 없습니다. 그가 자신을 계시하신 만큼 우리는 그를 알 수 있지만 그의 길은 우리의 길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에 대해 모든 것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전히 알려졌다고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형상대로 만든 것과 같은 정도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취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는 한계가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의 성경과 강의 계획서 [12:03-14:23]

그는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밝혔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알 수 있는 자신의 일부를 드러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강의 계획서를 작성하여 학생들에게 나눠줄 때, 나는 그들에게 무언가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코스에 대한 나의 계획과 코스에서의 나의 목적을 공개하고 있으며, 그들이 코스에 어떻게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지 그들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 이 학습 경험에서 파트너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중요한 것들이며, 강의 계획서의 목적은 그들이 적극적인 파트너로 참여할 수 있도록 나의 계획과 목적을 밝히는 것입니다. 이제 학생들이 강의 계획서에 매우 주의를 기울이면 교수, 사람, 교사로서의 저에 대해 무언가를 분별하거나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내가 조직적인지 아닌지, 디자인에 대한 재능이 있는지 없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 강의 계획서에서 나에 대해 몇 가지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강의 계획서는 나의 계획과 목적에 초점을 맞추면서도 나 자신을 조금 드러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강의 계획서처럼 생각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페이지에서 하나님은 그분의 계획과 목적, 그분의 왕국, 그리고 그 왕국에서

우리가 하는 역할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그분의 일에 참여하고 그분과 동업자가 될 만큼 충분히 주셨습니다. 그분은 과정에서 그분과 파트너가 되도록 그분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가 그분의 계획과 목적에 참여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주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그의 인격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지만 거기에는 더 많은 한계가 있습니다.

요약 [14:23-15:17]

그래서 우리가 욕기와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계시를 생각할 때,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과 그분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가 그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시는 이유에 대한 모든 설명과 하나님의 추론에 대한 이 친밀한 내부자의 시각을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우리는 진행하면서 이러한 구분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감받은 말씀의 일부인 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의 근원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긍정하는 것, 즉 지혜의 메시지에서 권위를 가지고 말하는 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권위에 복종해야 합니다.

권위의 의미와 권위에 대한 우리의 복종 [15:17-16:20]

일단 우리가 성경을 권위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선택하고 선택할 수 있는 사치와 자유를 스스로에게 허용할 수 없습니다. 말하자면, 그 부분은

내가 맡을 것이고 그 부분은 맡지 않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세금의 이 부분은 내고 저 부분은 내지 않겠다고 정부에 응답할 자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권위 아래 있습니다. 일단 권위 있는 메시지를 분별하면 우리는 권위 있는 영감받은 조각으로서 그 메시지에 우리 자신을 복종시키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일하지 않으시는지에 대해 우리에게 조금 알려줍니다 . 그것이 바로 욥기에서 우리에게 확인된 지혜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부분을 이해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Dr. John Walton과 욥기에 대한 그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3과, 권위와 영감이 있는 책으로서의 욥입니다. [16:20]